동반성장 인정받은 기업들 협력사와 함께 '으랏차차'

삼성전자-현대·기아차-LGD 등 28곳 동반성장 대상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디스플레이, 포스코, SK텔레콤, 코웨이, 유한킴벌리 등 28개 기업이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CJ제일제당, 롯데백화점, LG화학, 대상, KT 등 19곳은 협력 중소기업과 임금격차 해소운동에 동참해 감사패를 받았다.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을 갖고 대·중견·중소기업 담당자 240여 명과 함께 동반성장 문화확산에 기여한 기업들을 표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수원은 '2018 동반성장 문화확산 우수 공공기관'에 뽑혔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5번째)이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동반성장평가 최우수기업 28곳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또 중견기업인 신흥정밀을 비롯해 무등기업, 세펙트, 신신사, 완도매생이협동조합, 제일전자공업, 포롤텍 등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인 보은종합시장상인회, 천년담아 등 총 9곳이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기업으로 선정돼 역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올해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해주신 위원사 및 주요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더불어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동반위의 '임금격차 해소 운동' 추진 경과 발표와 함께 동서발전과 네이버가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별도로 동반위는 제 53차 회의를 열고 총 220개 기업을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으로 확정했다.

당초 올해엔 평가대상 기업이 200곳이었다. 하지만 덕양산업, 한국암웨이, 현대파워텍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깨끗한나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시스템, 쿠쿠전자는 평가유예판정을 받았다. 또 자본잠식상태로 평가명단에서 제외됐던 동부건설이 경영정상화로 다시 편입됐다. 여기에 매출액 상위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25개사가 새로 포함됐다.

특히 두산(두산), 엔에스쇼핑(하림), 애경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서영옥 화인테크 대표 벤처 첫 '금탑훈장'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화인테크놀로지 서영옥 대표가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 중에서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슈프리마 문영수 대표는 동탑산업훈장을, 씨티에스 이대준 대표는 철탑산업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2018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혁신성장의 주역인 벤처·창업진흥 유공자에게 훈장 3점 등 총 183점의 포장·표창을 줬다.

1997년부터 열린 이 행사는 21회째로 특히 올해엔 훈장의 등급을 최고 금탑산업훈장으로 상향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금탑훈장을 받은 화인테크놀로지 서영옥 대표는 지난 37년간 산업용 반도체 테이프 분야에 종사하며 국산화에 성공했고, 지속적인 품질 혁신을 통해 해외로 제품을 수출해 국내 테이프 분야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인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2018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을 열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오른쪽)이 서영옥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탑훈장을 수상한 슈프리마 문영수 대표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인식 기술과 90여 개가 넘는 특허를 바탕으로 전세계 1200곳이 넘는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 씨티에스의 이대준 대표는 디스플레이 초음파 건식 세정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공로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김학범 대표는 벤처창업투자 선순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철탑훈장과 산업포장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금성볼트공업 김선오 대표, 서현기술단 안명숙 대표, 엠에이티플러스 김동수 대표, 에프엔에스테크 김팔곤 대표, 탑엔지니어링 류도현 대표 등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인들은 창업 이후 수 많은 역경을 견뎌내면서 한국 경제와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해온 장본인들"이라면서 "대한민국 미래 혁신성장의 중심은 벤처 창업기업으로 벤처기업에게는 성장 기반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타트업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및 투자사 등 300여 명의 벤처·창업생태계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국내 벤처·창업기업 및 관계자와 함께 축하하기 위해 중기부와 벤처협회의 SNS(유튜브 등)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김승호 기자

30개 기업과 해외진출… LX '동반성장위원장상'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은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중견·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최한 행사다.

LX는 준정부기관 최초로 사내벤처를 도입해 창업공간과 자금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해외 로드쇼를 통해 30개 민간기업과 해외 동반 진출해 지난해 114억5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LX가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서 동반성장위원장 상을 받았다. /LX

최창학 사장은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에스앤아이

안전보건공단 수여 '안전·동행 프로' 인증

공간관리기업인 에스앤아이 코퍼레이션은 안전보건공단이 수여하는 '안전·동행 프로그램'을 인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예방 활동 촉진을 위해 주는 인증인 '안전동행 프로그램'은 다수의 지점을 보유한 기업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제도로 에스앤아이는 FM(Facility Management) 분야에서 인증을 받았다.

에스앤아이는 이번 인증 심사에서 10개 평가 분야 중 안전보건 능력향상, 개선지원 및 관리 등 5개 분야에서 만점을 취득하는 등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에스앤아이의 공간관리브랜드인 엣스퍼트의 첨단 정보기술(IT)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역량의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에스앤아이는 지난 40여년간의 공간관리 노하우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T기술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서비스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전국 250여 건물과 1800여 매장에 공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7년 공간관리 전문브랜드인 '엣스퍼트'를 론칭하고 통합운영센터와 전국의 22개 지역서비스센터를 기반으로 건물과 매장을 원격으로 감시·제어하고 상황 발생시 전문가가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에스앤아이는 LG그룹의 통신서비스 부문을 대표하는 토털 스페이스 솔루션 기업으로 빌딩통합관리, 건설 분야와 함께 곤지암리조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